

순창군 복지살림규모 넉넉

2013년 177억 → 2017년 522억 3배 증가 편성

순창군이 2018년도 주민복지예산으로 5년 사이에 3배가 증가한 522억원을 편성해 군민 복지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2018년도에 편성된 주민복지예산 중에서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0~5세까지 아동 중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매월 10만 원씩 내년 9월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1.105명으로 추산되며 6억6,300 만원을 편성했다.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사업비도 대폭 반영됐다. 관내 어린이집이나 그룹 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비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구)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해 만 12 세미만 아동에게 오후, 저녁 및 토요일 돌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도 들어선다.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새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장난감 대여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208억원을 반영했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올해보다 35명이 증가한 706명이 참여하도록 19억 4천만원을 편성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도 경로당 총 371곳 중에서 74.3%인 275개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은 96개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해 참여율을 90%까지 향상 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7억2,000만원이다.

다문화와 비 다문화 학생이 참여할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도 운영한다. 초중학생 46명이 참여한 이사업은 군에서 3,000만원, 교육지원청에서 3,100만원, 도립국악원에서 4천400백만원 등 총 1억천만원의 분담해 상호 협력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과 거동 불편자 이동방문 목욕사업도 순창읍 취약계층 목욕탕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읍면 맞춤형 복지팀은 내년에도 마지막으로 유등, 금과, 팔덕면을 권역으로한 풍산면에 설치하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복지 예산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많이 있다"라며 "내년에는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군민 모두가 잘사는 순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주민 손으로'

남원시, 내년부터 138억원 투입 원도심 활성화 박차

남원시가 내년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총 138억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 근린상권 약화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원도심(동충·죽항·금동 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일반근린형 분야와 도시생활 환경 분야로 추진한다.

일반근린형 분야에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6개 세부 단위사업에 102억원(국·도비 60억원)을, 도시생활 환경개선 분야에는 2017년 도부터 2020년까지 10개 세부 단위사업에 36억원(국비 18억원)을 포함)을 각각 투입한다.

일반근린형 주요 사업으로는 관한투원과 구남원역(중앙공원)을 잇는 춘몽·향단로(L=800m)에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도로를 조성하고, 거리 중간 보행자들이 쉬 수 있는 예!투원(園)을 조성한다.

놀다가(문화골목투어), 마을카페·공방, 커뮤니티가든(텃밭) 등 다양한 마중물 사업도 펼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폐기를 정비한다.

해적한 녹색 보행환경을 조성해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입시켜 상권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생활 환경개선 분야는 향교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향교동 축천교 앞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소공원과 마을 주차장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남원향교 진입로와 주차장도 확장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연인원 1만2,000여명의 방문객 편의를 도모한다.

남원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구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거버넌스 구축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공모사업 등을 펼쳐 주민 역량강화에 주력해 왔다.

남원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실천 남원시환경사업소 연탄나눔 행사

남원시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남원시 대산면 일대 불우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행사를 실시하여 한겨울 추위를 녹일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는 연말 연시를 맞이해 환경사업소 직원 20여 명이 대산면 지역 어려운 주민들 4가구에 연탄 1,000장을 각 가정마다 직접 배달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추진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한편 남원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추워진 날씨에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직원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 나눔의 계기를 만들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은빛설원과 활짝 핀 눈꽃의 '유혹'

지리산남원 아래봉 눈꽃축제 24일 개막

제7회 지리산남원 아래봉 눈꽃축제가 오는 12월 24일 임시개장을 시작으로 2018년 2월 11일까지 50일간 지리산하브레리 눈꽃축제장과 아래봉 일원에서 열린다.

눈꽃축제(회장 이정기)는 겨울·눈꽃, 그리고 동심으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겨울철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동심으로 돌아가 눈꽃의 낭만을 선물할 계획이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눈썰매·얼음썰매 타기, 이글루 체험장, 포토존,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대형 이글루, 눈꽃동산, 각종 캐릭터 조형물을 보강하여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한 겨울철 경관시설도 갖춘다.

임시개장(12월 24일~29일) 기간에는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 위주로 운영되며, 본격적인 개장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지리산 아래봉(1,167m)은 풍부한 적설량을 자랑하는 고원지대로써 아름다운 은빛 설원과 눈꽃으로 전국에서 많은 등반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도 동부권 발전위해 6개 시군 뭉쳤다

남원시·진안군·무주군 등 단체장·도의원 한자리 모여 상생·균형 발전방안 논의

전북 동부권 6개 시·군(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장수군) 단체장, 도의원 등이 동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 21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동부권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의(이하 협의회)에서 주관한 자리로 나후진 동부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행정·의회 구분 없이 동부권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 동부권 6개 시·군 단체장, 도의원 등이 힘을 합쳐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동부권 균형발전은 수년전부터 언급되고 있고 개발 당위성에 대해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동부권 6개 시군

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회는 2015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동부권 6개 시·군의 상생발전방안과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활동하여 왔다.

이번 회의는 동부권 가이문화 복원 등 발전방안 등 동부권에서 대응해야 할 사업논의와 2020년에 종료되는 동부권 특별회계의 연장 및 분야확대 방안에 대해 연정의 담연성을 전북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동안 논의 되었던 동부권 발전사업 발굴 등 중앙부처 건의 등을 동부권 6개 시·군 의회에서도 힘을 함께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장인 이환주 남원시장은 "회의에 참석해주신 단체장, 도의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동부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하고 단합하여 동부권 발전을 꼭 이루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실내수영장 내달초 재개장

순창군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95%를 넘어지면서 새단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월초 실내수영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군 실내수영장은 1998년 개관 이래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해 왔던 시설로 그동안 각종 시설이 노후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올해 추경예산에 2억4,000만원을 확보해 지난 10월 중순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체력단련실 확장 및 운동기구 보강, 천장재 교체, 풀장 진흙입로 신규 개설, 풀장 타일 줄눈 시공, 공기순환장치 설치, 탈의실 재부 및 보수 및 옷장문 교체 등의 내용이다.

군은 특히 재개장을 하면 체력단련실 확장 및 보강으로 수영과 헬스를 같이 즐길 수 있어 군민들이 크게 만족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성원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단계에 접어들어서 재 개장을 위한 운영준비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새해 새로운 모습으로 군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지방재정아이디어 최고상

남원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2017 지방재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고 우수상(제안자 이현재, 김춘성)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매년 대한민국의 지방재정 발전에 창의적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에 노력이 빛나는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은새미로 '예산동아리'를 공직자 12명이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해 토론, 소통으로 남원시 재정의 현안 문제에 대해 공유한 결과 "재정자립도 꼴찌(2017년 11.7%)의 노후로 자체 세입을 발굴하다"라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고민했다.

매주 목요일 예산동아리 활동을 한 결과, 남원시 특화사업으로 '미꾸리 추어 육성산업'을 창출하게 됐다. 이 사업은 남원시에서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미꾸리를 활용하여 추어육성브랜드를 창출하고, '남원시 추어탕' 특허를 특허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은새미로의 지역브랜드 창출 '남원추어탕'으로 세입 발굴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남원시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